

□ 추진배경 및 필요성

○ 청년 대상 생활정보를 어디에 먼저 안내할지 생각할 때, 청년이 많이 사는 지역부터 살펴보기 쉽다. 그러나 청년 인구가 많은 곳과 혼자 사는 청년의 비율이 높은 곳은 같지 않을 수 있다.

- 이 차이를 대구의 실제 통계로 확인하고자 SGIS 청년통계지도를 활용했다. 청년 수와 가구구성 비율을 함께 살펴 생활지원 안내 지역을 검토할 기초자료를 만들었다.

○ 2024년 대구의 19~34세 청년은 450,627명이며, 이 중 1인가구 청년은 94,824명이다. 규모와 비율을 같은 조건에서 비교하는 것이 이번 분석의 출발점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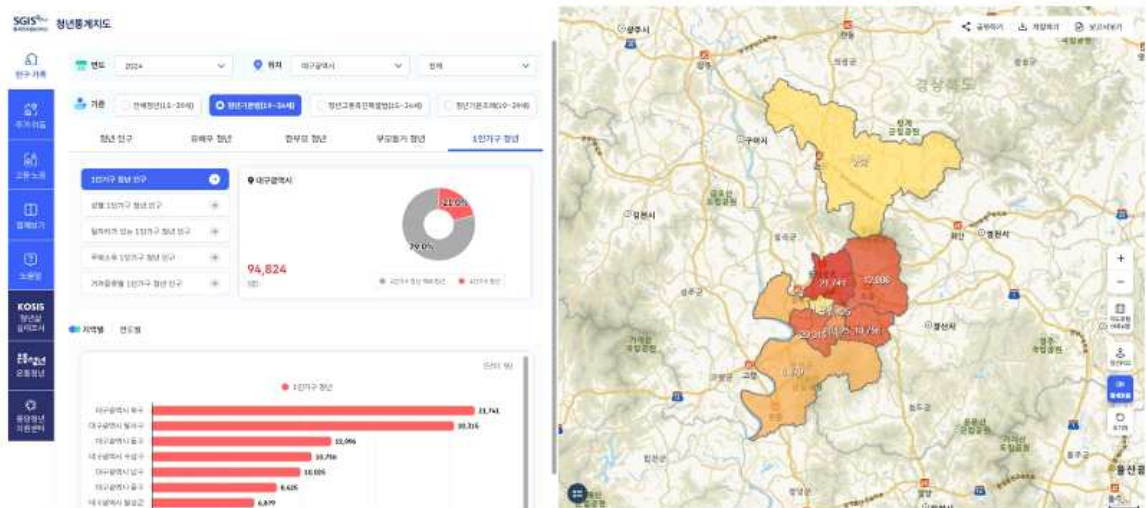


그림 1. SGIS 실제 조회 화면. 2024년, 대구광역시, 19~34세, 1인가구 청년 인구. 조회일: 2026. 9. 30.

□ 추진과정

○ SGIS 청년통계지도의 인구·가족 메뉴에서 2024년, 대구광역시, 시군구 전체, 청년기본법 기준 19~34세를 선택했다.

- 청년 인구와 1인가구 청년 인구를 차례로 조회하고, 지도에 통계수치를 표시해 지역별 그래프와 대조했다. 9개 구군의 값을 옮긴 뒤 합계가 대구 총계와 맞는지 검산했다.

■ 활용분야 및 주요내용:

- 활용분야: SGIS 청년통계지도 / 인구·가족
- 주요내용: 대구 9개 구군의 청년 인구와 1인가구 청년 인구를 비교하고, 규모·비율에 따른 생활지원 안내 검토 지역을 정리함.

○ 비교 기준은 연도·지역·연령을 통일했다. 기초자료는 청년통계등록부의 2024년 확정자료이며, 서비스 도움말에서 2026년 8월 기준 자료임을 확인했다.

- 9개 구군의 합계는 청년 인구 450,627명, 1인가구 청년 94,824명으로 SGIS의 대구 총계와 일치했다.

○ 각 구군의 1인가구 청년 수를 해당 구군의 전체 청년 수로 나누고, 대구 전체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다. 전체 가구 수나 전체 주민 수를 분모로 사용하지 않았다.

청년 중 1인가구 비율(%) = 해당 구군 1인가구 청년 인구 ÷ 해당 구군 청년 인구 × 100

대구 내 구성비(%) = 해당 구군 1인가구 청년 인구 ÷ 94,824 × 100

도움말은 원형 차트의 제외 인구보다 해당 지표의 청년 수치 활용을 권장한다. 이에 두 청년 인구 지표의 실제 표시값을 사용했다.

□ 추진내용

○ 대구 9개 구군의 규모와 비율 비교

구군	청년 인구	1인가구 청년	청년 중 비율	대구 내 구성비
달서구	108,084	20,315	18.8%	21.4%
북구	91,265	21,741	23.8%	22.9%
수성구	65,287	10,756	16.5%	11.3%
동구	59,647	12,096	20.3%	12.8%
달성군	45,472	6,879	15.1%	7.3%
서구	28,280	4,325	15.3%	4.6%
남구	28,131	10,025	35.6%	10.6%
중구	22,708	8,425	37.1%	8.9%
군위군	1,753	262	14.9%	0.3%
대구 전체	450,627	94,824	21.0%	100.0%

표 1. 2024년 19~34세 기준, 인구 단위: 명. 비율은 조희값으로 직접 계산하고 소수점 첫째 자리로 반올림함. 출처: 국가데이터처 SGIS 청년통계지도.

- 청년 인구는 달서구가 가장 많지만, 1인가구 청년 수는 북구가 가장 많았다. 북구 21,741명과 달서구 20,315명을 합하면 대구 1인가구 청년의 44.4%에 해당한다.

- 중구와 남구는 청년 인구 규모에서 각각 8위와 7위이나, 청년 중 1인가구 비율은 37.1%와 35.6%로 1위와 2위였다. 청년 수만 보면 이 두 지역의 가구구성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다.

○ 규모와 비율을 나누어 생활지원 안내 지역 검토

1인가구 청년 수



청년 중 1인가구 비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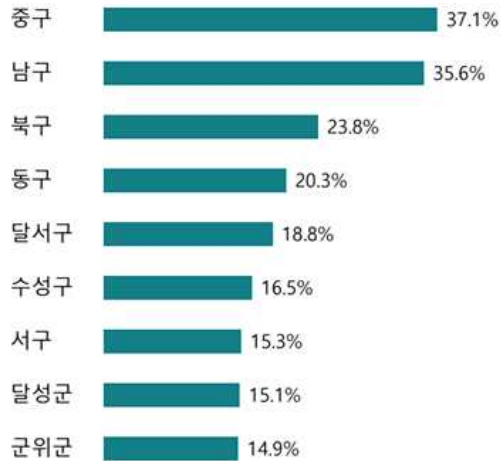


그림 2. 같은 SGIS 조회값으로 작성한 규모·비율 비교도. 왼쪽은 1인가구 청년 수, 오른쪽은 해당 지역 청년 중 1인가구 비율이다.

- 첫 번째 질문은 “어디에 많은 청년 1인가구가 있는가” 다. 북구·달서구처럼 규모가 큰 지역에서는 기존 청년공간과 대학 등의 안내 창구를 확인하며 점점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.

- 두 번째 질문은 “지역 청년 중 혼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” 다. 중구·남구에서는 주거·생활정보 안내에 1인가구 관점을 충분히 담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.

- 북구는 규모가 크면서 비율도 대구 전체 21.0%보다 높아 두 관점을 함께 살펴볼 지역이다. 실제 시설 위치와 이용 수요를 확인한 뒤 지역별 안내 방식에 반영할 수 있다.

□ 추진성과

○ 대구 9개 구군 비교표와 두 관점의 순위도, 지역별 검토 메모를 작성했다. 청년 인구 규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, 같은 지역의 청년을 분모로 한 1인가구 비율까지 확인하는 분석 절차를 만들었다.

- 북구·달서구의 큰 규모와 중구·남구의 높은 비율을 구별하면서, 하나의 순위만으로 지원 지역을 판단하지 않도록 검토 기준을 보완했다.

○ 다른 지역에서도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회 조건, 원수치, 계산식과 실제 화면을 근거자료로 정리했다. 같은 메뉴에서 시도를 바꾸고 연도·연령을 통일하면 이 비교를 반복할 수 있다.

- 첨부 계산표는 화면 조회값을 옮겨 적고 비율·구성비를 계산한 자료다. 원수치와 계산 결과를 함께 남겨 분석 과정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.

○ 이번 성과는 지역별 안내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기초 분석과 재현 자료를 마련한 데 있다. 다음 단계에서는 후보 지역의 기존 청년공간과 실제 생활정보 수요를 확인하고자 한다.

- 1인가구라는 사실만으로 고립·은둔이나 저소득을 판단할 수는 없다. 구군 통계만으로 특정 동네나 시설의 접근성을 확정할 수도 없으므로, 실제 적용 시 시설 분포와 당사자 의견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.

출처: 국가데이터처 SGIS 청년통계지도 및 도움말 → 지표 설명

<https://sgis.mods.go.kr/view/syrStats/main>

조회·분석일: 2026. 9. 30. / 작성자: 김준석

별첨 근거자료: 실제 조회 화면 2종, 지표 설명, 9개 구군 원수치·계산표, 자료설명.